

# ‘배캠 30년’... 멋지게 늙어가는 DJ 배철수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  
“청취자와 함께 해 사랑스러워  
록음악 최고라는 편견  
신청곡 들어주지 사라지더라”

저녁 시간만 되면 록그룹 롤링스톤스의 ‘새티스팩션’(Satisfaction) 클래식 버전이 흐른다. 굳이 어록 내던지는 말투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린다.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다.

MBC FM4U(광주 91.5MHz) ‘배철수의 음악캠프’(이하 ‘배캠’)는 지난 19일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날로부터 꼭 30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한 ‘배캠’은 DJ 배철수(67)의 진행 아래 팝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MBC의 정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배철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늘 얘기하지만 난 별거 아니다”라며 30년을 함께 해온 청취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30년 전 방송할 땐 저도 록밴드 일원이었고 좌충우돌하던 시기였죠. 처음엔 ‘내가 잘하니까 방송사에서 날 캐스팅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구나... 그때부터 ‘배캠’은 청취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캠’은 3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영국 런던 BBC 마이다 베일 스튜디오에서 일주일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런던에 거주하는 ‘배캠’ 청취자들이 DJ 배철수를 만나러 갑작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배철수는 “BBC까지 와서 방송할 만큼 ‘배캠’이 인정받는 게 기뻐다. 30년을 해왔던 게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캠’의 기록은 전무후무하다. 최장수 단일 DJ 기록을 보유한 배철수뿐 아니라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24년째 출연 중인 최장수 게스트고, ‘철수는 오늘’ 코너를 담당하는 김경옥 작가 또한 배철수와 30년을 함께 한 최장수 작가다. ‘배캠’에 출연한 해외 아티스트는 280개 팀으로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 중 가장 많다.

‘배캠’ 사람들은 30년 원동력으로 ‘인간 배철수’를 꼽았다. 임진모 평론가는 “배철수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은연중에 따라 하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했고, 김경옥 작가는 “든든한 느티나무 같다”며 웃었다. ‘배캠’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더 디제이’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약 3개월간 배철수를 관찰하고선 “배철수가 지켜온 원칙이 있다. 남들은 지키기 쉽지 않은 유혹도 있는데 태연하게 그 걸 견지한다”면서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영국 BBC 스튜디오서 생방송  
팝 시장 ‘배캠’ 위상 막강 느껴”  
해의 뮤지션 280개 팀 출연  
음악 한 곡에 웃는다면 충분



배철수가 ‘배캠’을 진행하며 얻은 것도 있다. 그는 “밴드 생활하면서 록 음악이 최고고 그 외 장르는 음악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음악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털어놨다.

“청취자들이 보내는 신청곡은 히트곡들이 많아요. 그런 음악들을 역지라도 듣기 시작했죠. 계속 듣다 보니 음악에서 장르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싶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12음계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 음악이라고. 또 대중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듯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대중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악은 좋은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는 5년 전 ‘배캠’ 2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진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배캠’은 30년까지만 하고 방송 연에 활동은 록밴드 ‘송골매’로 회귀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걸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은 “30주년이 되고 나니까 ‘배캠’은 내 의지로 그만두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청취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배철수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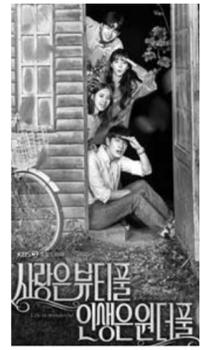
“라디오는 6개월마다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내게 시간이 더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팝음악의 전도사’이자 록밴드 디퍼플 팬으로 유명한 그는 다시 보고 싶은 게스트로 멤버 존 로드를 꼽았다. 한때 팝은 국내 음악 시장을 지배하는 장르였지만 1980년대 말 인기가 가라앉았다. 그런데도 팝 시장에서 ‘배캠’의 위상은 막강하다. 임진모 평론가는 “여전히 팝을 듣는 사람 있으면 어떤 형태든 ‘배캠’과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배캠’을 배철수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했다.

“몇 년간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배캠’이 워 대단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냥 일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음악 한 곡 듣고, 제가 던지는 실 없는 농담에 피식 웃을 수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가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욕심 내지 않고 좋은 음악 듣고 가끔 피식 웃는 프로그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 KBS ‘사품인폴’ 행복한 결말 시청률 32% 종영



파격적인 소재를 택해 화제를 모은 KBS 2TV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하 ‘사품인폴’)이 30%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2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턴 KBS 2TV에서 방송된 ‘사품인폴’ 최종회는

29.2%~32.0%로 집계됐다. 마지막 방송은 김청아(설인아 분)가 학교폭력 가해자 문해랑(조우리)의 사과를 받고, 구준휘(김재영)와 결혼을 앞둔 모습이 그려졌다. 청아인나 김설아(조우희)는 도진우(오민석)와 재결합하며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사품인폴’은 드라마 초반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와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동반 자살을 한다는 파격적인 소재를 택했다. 주말 저녁 8시 온 가족이 둘러보는 드라마의 특성상 부적절한 소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때론 ‘막장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KBS 주말드라마로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의의가 있었다.

문제는 파격적인 소재를 풀어내는 완성도에 있었다. 지식들의 잘못을 덮는 데만 급급한 어머니 캐릭터들은 그렇다 쳐도, 주말드라마를 전형적인 막장극으로 만드는 ‘갑질 부리는 안하무인 시어머니’ 홍화영(박해미)은 초반 기획의도를 무색케 하는 캐릭터였다.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을 뒤집어쓴 강시열(이태선)의 등장 이후로는 주연들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원성이 시청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는 드라마 초반의 우울한 분위기와 맞물려 ‘사품인폴’ 시청률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청률 30%는 기본으로 먹고 간다는 KBS 주말드라마임에도 ‘사품인폴’은 10~20%대 중반에 머물다가 총 100회 기준 80회에서야 30%를 가까스로 넘겼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50 꽃길만 걸어요(재)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지구촌 뉴스 4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스파이 야생 대탐험	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공룡의 왕국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가DS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특 보험설계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스핀지 스페셜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1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서거식당(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40 품미 오디션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4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미래통합당)	00 정재영의 이슈IN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동물의 왕국	00 고립낙원(재)	00 5 MBC 뉴스 2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스페셜 숲들이 탐구생활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0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1	35 UHD 숲터 40 바다 건너 사랑	00 영화가 좋다(재)	00 PD수첩 55 그 남자의 기억법(재)	00 불타는 청춘
12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KBS 결적 다큐멘터리(재)	10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알제리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KBS 중계식(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00 당동맹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야옹명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대 호기심떡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원랜던 로키, 알래스카 -신이 빛은 놀이>
09:30 윈터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40 야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대 호기심떡지(재)	<여행책에 없는 제주 2부 비밀의 계곡 효돈천>
10:00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음 3월 1일 丙寅)

<p>36년생 향후, 목전에 전개되는 판세는 우연이 아님을 알지 못하다. 48년생 안배를 잘 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60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르는 것이 맞다. 72년생 자신의 주관이 중요하다. 84년생 기본적인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96년생 미리 정보의 수집부터 해줘야 한다.</p> <p>행운의 숫자 : 22, 93</p>	<p>42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땀에 걸려드는 폐해가 있을 것이다. 54년생 가뭄에 겨워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66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78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경계할 이유가 없다. 90년생 방심한다면 잇따른 약재가 생길 수도 있다. 02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행운이 따르는 호기이다. 행운의 숫자 : 11, 52</p>
<p>37년생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자본이 될 것이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49년생 길사가 발생할 징후가 역력히 보인다. 61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고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73년생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 85년생 격식이 필요한 때이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97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70</p>	<p>31년생 자기감각에 빠질 수 있다. 43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55년생 빨리 끊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쉽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 79년생 균형 속의 다재모음이 변명을 꾀한다. 91년생 소모적이라면 한 시 바빠 벗어나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94</p>
<p>38년생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50년생 명세스러운 일로 부각될 수도 있는 운에 놓여있다. 62년생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74년생 점검해보는 것이 위험을 방지해 준다. 86년생 필요로 한다면 실제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 98년생 지금은 급한 형세이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4, 73</p>	<p>32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44년생 시간 낭비만 할 뿐이다. 56년생 피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대응하면 된다. 80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92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참지 말고 당당하게 발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53</p>
<p>39년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51년생 계획이 근사하더라도 실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63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담배야 결말이 낫 것이다. 75년생 지밀한 계획 하에 차분하게 조처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87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99년생 이상적인 상태로 종결지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25, 66</p>	<p>33년생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45년생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57년생 신중함보다 과감한 행동력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69년생 작은 조치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81년생 기존의 것을 교체하게 되는 판국이다. 93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62</p>
<p>40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할 것 잘 맞아 떨어질 수다. 52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64년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던 바가 흔들릴 수 있는 운세이다. 76년생 확고하고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88년생 궁리해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00년생 안정세를 굳히게 되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3</p>	<p>34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처리하고 불일이다. 46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58년생 더 이상 시간이 없다. 70년생 주변이 어찌 되어가든지 간에 자신의 길만 묵묵히 진행하고 있으면 된다. 82년생 가치를 인식하게 되리라. 94년생 지밀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8</p>
<p>41년생 사전에 대비를 잘 해줘야 자질이 없을 것이다. 53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다 된 마당에 파탄날 수도 있다. 65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77년생 뒤돌아 보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들라. 89년생 유리하게 전개 될 수 있는 마당이다. 01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목적지에 무난하게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33, 69</p>	<p>35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라. 47년생 배분과 할애를 잘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59년생 갈림길에서 있으니 냉정해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71년생 용감하게 추진한다면 두이 많을 것이다. 83년생 한계를 느끼거든 즉시 선회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주변과 조화를 깨뜨릴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2, 95</p>